

# 제조업 고용변동의 현황과 추이 분석

이 시 균\*

## I. 문제 제기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세계 상위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및 자동화투자 확대로 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고용은 커다란 변동을 겪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급격한 고용 감소를 보이더니, 전체 고용증가를 주도할 정도의 고용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고용감소로 전환된 것이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고용상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제조업에서의 구조적 고용조정 과정은 마무리된 것인가, 아니면 급격한 고용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최근 제조업 고용하락은 경기하락에 따른 효과인가, 아니면 구조적 고용조정 의 영향인가? 본 연구는 제조업에서 최근의 급격한 고용변동의 현황과 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선진국이 성장과 고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조업의 고용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근 고용변동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siju0428@keis.or.kr).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제조업 고용 현황과 추이를 보여주고 생산과 고용의 관련성과 고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제Ⅲ장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일자리 변동 및 노동력 변동 실태를 제시하여 동학적 차원에서 제조업의 고용변동 구조를 분석한다. 제Ⅳ장은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향후 필요한 논점을 제시한다.

## Ⅱ. 제조업 고용 현황과 추이

2012년 2사분기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6만 1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2%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5.0%, 2010년 2사분기 4.5%에 비해 급속하게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 고용감소를 경험하고 나서 2010년 1.4%, 2011년 1.7%, 2010년 2사분기 1.8%, 2011년 2사분기 1.7%, 2012년 2사분기 1.8%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의 고용현황과는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에 18.1%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 16.3%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높아졌던 2010년과 2011년에 16.9%로 높아졌다가 2012년 들어 다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고용비중의 변동이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의 전체 고용비중은 16%대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과 생산의 관계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제조업 생산증가율과는 무관하게 제조업 고용감소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조업 고용변동이 생산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순행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6.2%였으나 제조업 고용증가율은 1.1%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09년에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5% 감소하였고 제조업 고용증가율도 3.2% 감소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된 2010년 이후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4.7%로 높아졌고 고용증가율 역시 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2년 2사분기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2.7%로 둔화되면서 고용증가율 역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전체 취업자 수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용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과는 상이하게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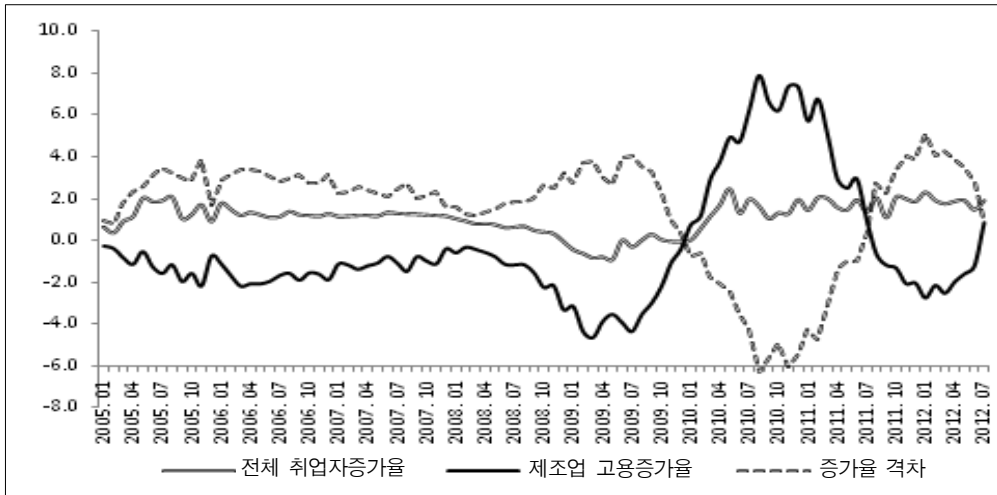
〈표 1〉 제조업 고용현황 및 추이

(단위: 천 명, %)

	2005	2009	2010	2011	2009. 2/4	2010. 2/4	2011. 2/4	2012. 2/4
취업자	22,856	23,506	23,829	24,244	23,737	24,170	24,572	25,003
(증가율)	1.3	-0.3	1.4	1.7	-0.6	1.8	1.7	1.8
제조업 취업자	4,130	3,836	4,028	4,091	3,843	4,015	4,127	4,061
(증가율)	-1.1	-3.2	5.0	1.6	-3.8	4.5	2.8	-1.6
제조업 취업자 비중	18.1	16.3	16.9	16.9	16.2	16.6	16.8	16.2
제조업 생산증가율	6.2	-1.5	14.7	7.2	-7.1	17.6	7.5	2.7
경제성장률	4.0	0.3	6.3	3.6	-2.1	7.6	3.5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그림 1〉 금융위기 전후 제조업 고용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을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전후로 전체 취업자 수 변동과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동 추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점진적인 증가율 하락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고용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감소의 반등에 따른 효과와 고령층의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전 지속적인 고용감소 현상이 관찰되다가, 금융위기 직후 큰 폭의 고용감소를 경험하고 나서 크게 반등하여 고용증가를 지속하다가 최근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의 둔화와 더불어 고용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증가율과 제조업 고용증가율 간의 격차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전후로 큰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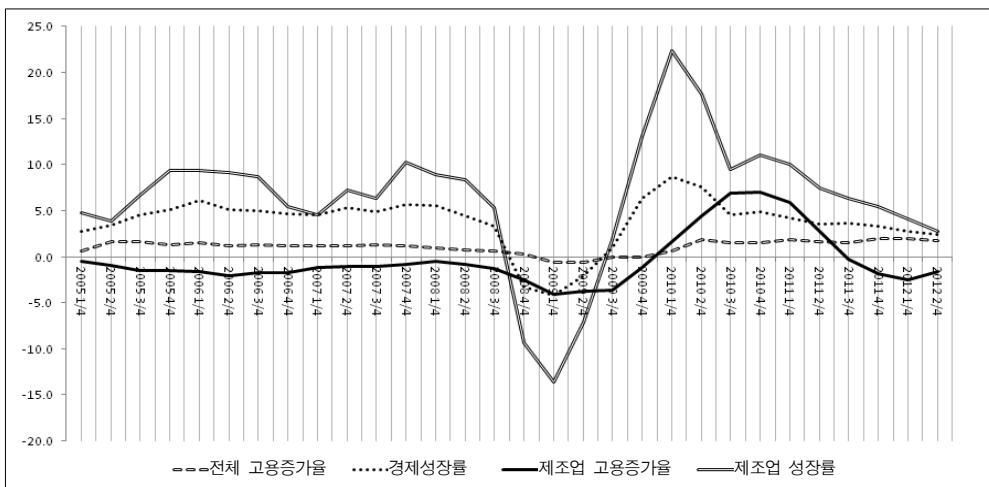
이를 보여준다. 금융위기 전에는 전체 취업자 증가율이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로는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과 전체 취업자 증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제조업에서 금융위기 이후 고용과 성장의 동조화 현상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전체 취업자의 경우 고용과 성장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의 경우 2010년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증가추세를 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2009년의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진입에 따른 효과로 설명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추세 역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조업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 변동성이 이전과는 달리 매우 커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도 제조업의 생산변동성에 따라 동조화되어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과 고용추이를 보면 최근의 제조업 고용의 감소는 제조업 생산의 위축으로 인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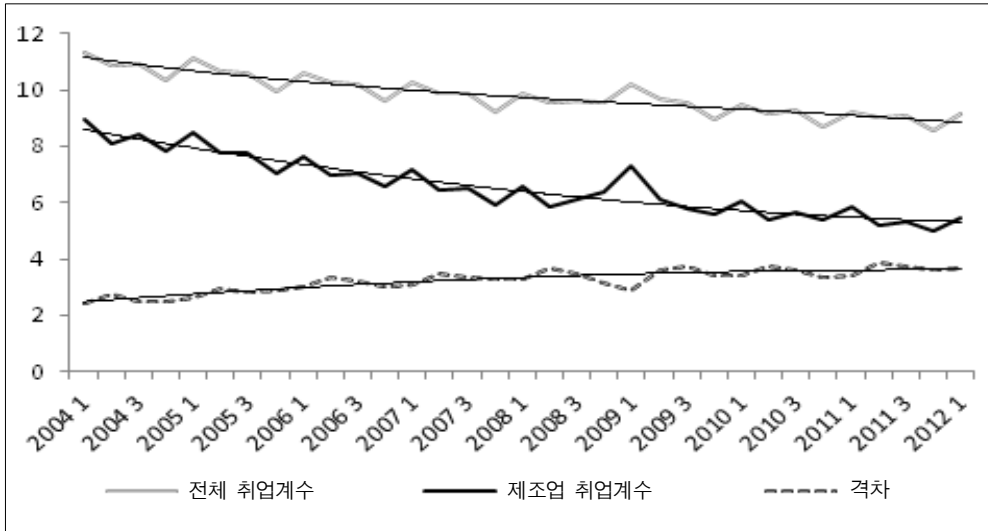
제조업의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고용변동성이 경기변동의 동조화 현상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제조업 취업계수의 하락경향은 2004년 이후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한 취업계수의 하락추세보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 시기에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보이지만 대체로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제조업 취업계수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장기간 지속시켰던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

[그림 2] 성장추이와 고용변동성의 관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그림 3] 취업계수 추이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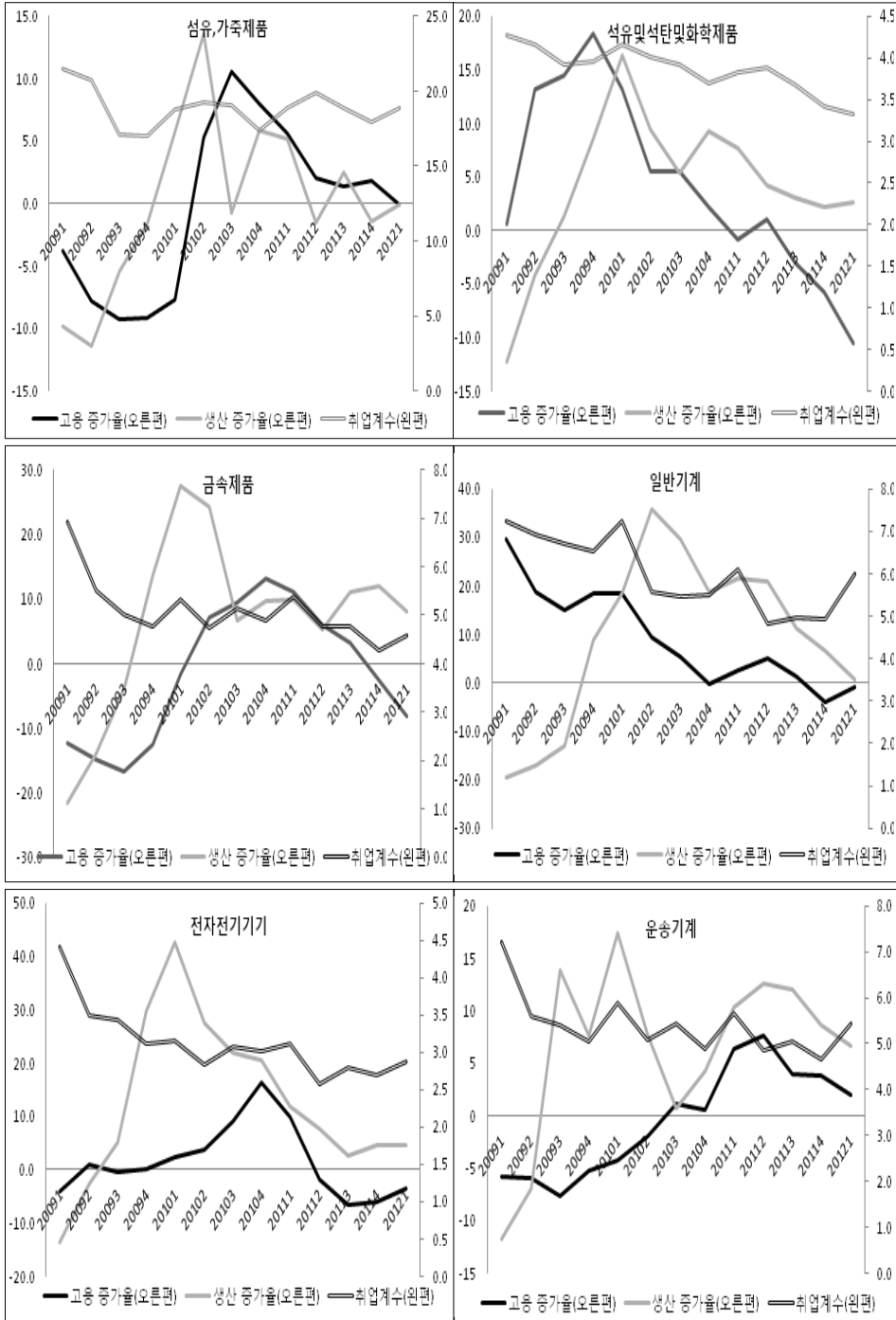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최근의 제조업의 급격한 고용변동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파생한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예견되고 있어 제조업 고용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제조업 중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고용과 생산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일반기계 업종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고용변동은 생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 가죽제품, 금속제품, 전자전기기기, 운송기계 제조업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생산의 변동에 따라 고용변동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고용변동이 생산변동에 우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세부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는 금융위기 직후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동을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생산과 고용 간의 비례관계를 가정하면 취업자 수 변동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경기적 요인은 취업자 수 증감 중 산출량 증감에 비례하는 부분이며, 구조적 요인은 생산과 고용 간의 비례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비교연도의 취업자 수와 가상의 취업자 수의 차이에 해당한다.<sup>1)</sup>

1) 고용량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elta L = L^1 - \lambda L^0 + (\lambda - 1)L^0$  여기서  $\lambda = X^1/X^0$ 가 되며,  $L^1 - \lambda L^0$ 가 구조적 요인,  $(\lambda - 1)L^0$ 가 경기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림 4] 주요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생산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표 2〉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의 요인별 분해

(단위: 천 명, %)

	2008. 1/4~2009. 1/4		2009. 1/4~2010. 1/4		2010. 1/4~2011. 1/4		2011. 1/4~2012. 1/4	
	증감	기여도	증감	기여도	증감	기여도	증감	기여도
고용량변동	-163	-4.1	61	1.6	228	5.8	-102	-2.5
경기적변동	-545	-13.6	864	22.4	392	10.0	168	4.1
구조적변동	382	9.5	-803	-20.9	-164	-4.2	-270	-6.5

주: 1) 기여도 = (요인별 취업자 수 증감 / 기준연도 취업자 수) × 100

2) 고용량 변동 = 경기적 변동 + 구조적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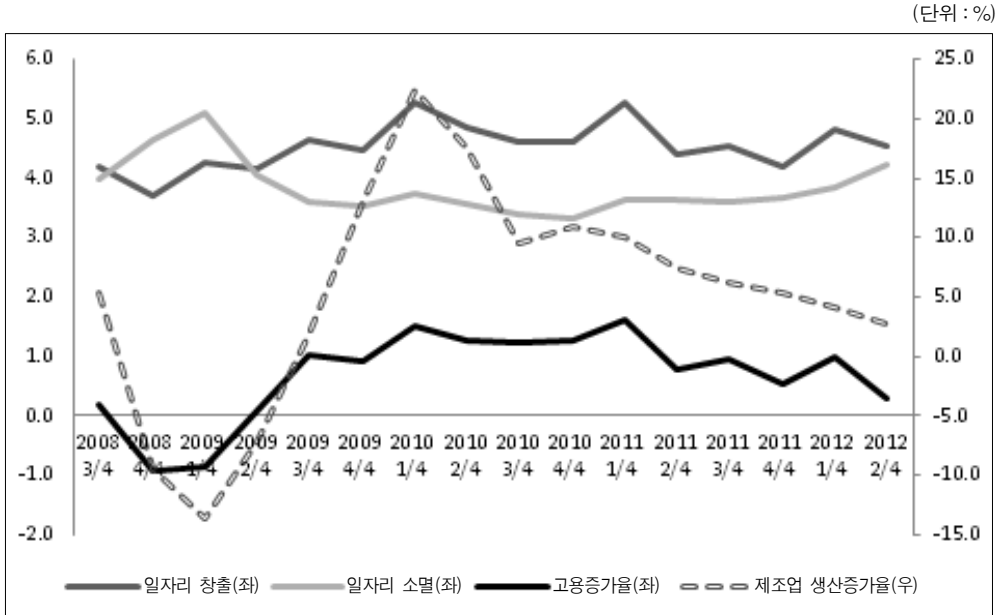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보면 2009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증가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변동 요인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감소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부(-)의 구조적 변동 요인이 정(+)의 경기적 요인보다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최근 고용변동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구조적인 고용조정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된다.

### Ⅲ. 제조업 일자리, 노동력 변동 특성

제조업의 최근 고용변동을 동학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노동력 차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5]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및 고용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은 1사분기 동안 일자리가 생겨난 수를 의미한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추이를 보면 2008년 4사분기에 3.7%에서 2010년 1사분기에 5.3%로 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졌다가 2011년 4사분기에 4.2%로 낮아지고 있다. 일자리 소멸은 1사분기 동안 일자리가 없어진 수로, 2009년 1사분기에 5.1%로 높았으나 2010년 4사분기에 3.3%까지 낮아지다가 2012년 4%대로 다시 높아졌다. 고용증가율은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소멸을 뺀 수로 1사분기 동안 순수하게 늘어난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2008년 4사분기와 2009년 1사분기에 일자리 소멸률이 창출률보다 높아서 순고용증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2사분기 이후 고용증가율이 높아지다가 2011년 2사분기 이후 일자리 창출률은 낮아지고 소멸률은 높아지면서 고용증가 추세도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5]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소멸, 고용증가 추이 변화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를 고려하면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에 일자리 창출, 소멸, 순고용증가 추이가 연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경기 순환적, 일자리 소멸은 경기역행적 양상을 보여주며, 순고용증가는 경기순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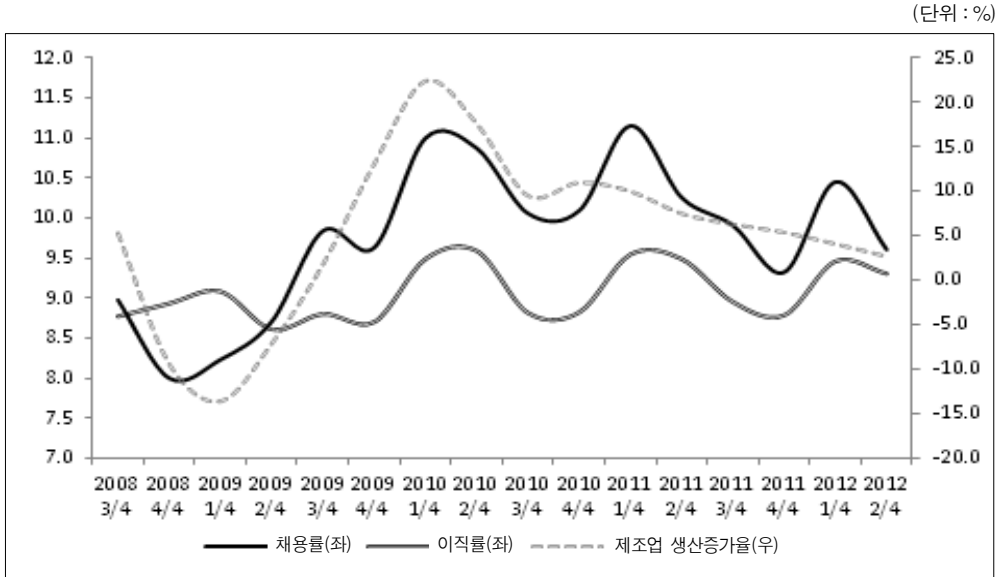
[그림 6]은 제조업의 노동력 변동(worker flows) 추이를 보여준다. 노동력 변동은 채용과 이직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채용은 1사분기 동안의 사업체 단위에서 채용된 수로, 이직은 이직된 수로 측정된다. 채용률 추이를 보면 2009년 들어서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1년 1사분기에는 11.2%로 높아졌으나 그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여 2011년 4사분기에 9.3%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직률을 보면 금융위기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4사분기에 8.9%, 2009년에 8.7%, 2010년에 8.8%, 2011년 8.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채용률 추이와는 상이한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생산변동과 채용률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률이 경기순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최근 제조업의 고용변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이직률은 경기충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 고용비중이 비교적 큰 세부업종을 살펴보면, 섬유가죽제품 제조업에서 2008년 4분기에 채용률은 9.3%, 이직률은 10.9%로 순고용이 감소되었으나 2010년 채용률이



[그림 6] 제조업의 노동력 변동 추이



자료 : 고용보험 행정자료.

이직률보다 1%p 높아져서 고용증가로 반전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고용감소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8년 4사분기에 일자리 창출률이나 채용률이 일자리 소멸률이나 이직률보다 낮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4사분기에 일자리 창출률이나 채용률이 일자리 소멸률이나 이직률보다 1.5%p 높아 고용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4사분기에 고용증가는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8년에 채용률은 9.2%에서 2010년에 10.9%로 높아졌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직률도 2008년에 10.1%로 채용률보다 높았으나 2010년에 9.3%, 2011년에 9.4%로 감소하다 최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계 제조업의 경우에도 2008년에는 채용률이나 일자리 창출률이 이직률이나 일자리 소멸률보다 낮아서 고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2.3%의 높은 고용증가를 보이다가 2011년에 다시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2008년에 2.1%의 고용감소를 경험하다 2009년에 1.4%의 고용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나 그 이후 점차 고용증가가 둔화되어 최근에는 다시 고용감소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인다.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2008년 4사분기에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4사분기에 1.4%, 2011년에 1.3% 고용이 증가하더니, 2012년 들어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주요 제조업 세부업종별 일자리,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 %)

		채용률	이직률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고용증가율
섬유가죽제품	2008. 4/4	9.3	10.9	4.0	5.6	-1.6
	2009. 4/4	10.5	10.1	4.5	4.1	0.4
	2010. 4/4	11.2	10.2	4.7	3.8	1.0
	2011. 4/4	10.8	10.7	4.6	4.5	0.1
	2012. 2/4	10.3	10.6	4.5	4.8	-0.3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2008. 4/4	6.7	7.5	3.1	3.9	-0.8
	2009. 4/4	8.3	7.2	3.9	2.8	1.1
	2010. 4/4	8.9	7.4	4.1	2.6	1.5
	2011. 4/4	7.9	7.7	3.5	3.3	0.2
	2012. 2/4	8.0	7.6	3.5	3.1	0.4
금속제품	2008. 4/4	9.2	10.1	4.4	5.3	-0.9
	2009. 4/4	10.3	9.2	5.1	3.9	1.1
	2010. 4/4	10.9	9.3	5.2	3.6	1.6
	2011. 4/4	10.6	9.4	5.3	4.1	1.2
	2012. 2/4	10.0	9.5	4.7	4.2	0.5
일반기계	2008. 4/4	9.8	10.4	4.9	5.6	-0.6
	2009. 4/4	10.9	9.5	5.4	4.0	1.4
	2010. 4/4	12.0	9.8	6.0	3.7	2.3
	2011. 4/4	10.9	10.0	5.3	4.4	0.9
	2012. 2/4	10.6	10.1	5.1	4.5	0.6
전기 및 전자기기	2008. 4/4	6.2	8.3	2.7	4.8	-2.1
	2009. 4/4	9.4	8.0	4.5	3.1	1.4
	2010. 4/4	9.0	8.2	4.1	3.2	0.8
	2011. 4/4	7.4	7.8	3.0	3.5	-0.5
	2012. 2/4	10.0	10.4	5.4	5.8	-0.3
운송장비	2008. 4/4	7.6	7.8	3.4	3.6	-0.2
	2009. 4/4	9.1	8.5	3.8	3.3	0.6
	2010. 4/4	9.5	8.1	4.1	2.7	1.4
	2011. 4/4	9.3	8.0	4.1	2.8	1.3
	2012. 2/4	8.8	8.0	3.8	3.0	0.8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 IV. 맺음말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 제조업의 고용변동을 동학적 차원에서 분석해 고용변동의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제조업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동향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고용현황은 최근의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의 압력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만은 금융위기 이후의 짧은 반등 기간 동안의 고용증가를 경험하고 난 후 지속적인 고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고용변동 추이의 특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기요인에 의한 것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이 그것이다. 서비스업 등 다른 비제조업 부문과는 달리 제조업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금융위기 직후 급격한 고용하락과 그 후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효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제조업의 고용변동 추세는 과거 외환위기 시와 비교하면 변동의 크기는 상이하지만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고용과 경기충격의 관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아서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제조업의 고용변동의 추이를 설명하는 둘째 요인은 구조적 요인이다.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고용조정 과정을 가져오면서, 제조업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감소하고 있었다. 비록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이 현상은 고용변동의 요인분해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서의 고용조정 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효과로 주로 설명된다. 제조업에서 구조적인 고용조정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제조업 고용 감소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의 동학적 고용변동 추이를 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소멸의 변동성이 앞선 고용변동 추이와 일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확인하였지만 이직의 경우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동학적 고용변동 구조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소멸(일자리 변동), 채용과 이직(노동력 변동)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체고용으로 이해되는데, 1사분기 기간 동안 대체고용의 크기는 대략 4~6% 수준<sup>2)</sup>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체 종사자 중 약 5%의 노동력이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일자리 창출, 채용은 경기변동

2) 대체채용 = 채용 - 일자리 창출, 대체이직 = 이직 - 일자리 소멸.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순행적인 지표로 파악되었다.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과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노동력 변동성은 안정적 숙련노동력의 공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제조업의 급격한 고용변동은 과거 외환위기 시기의 제조업 고용변동과 유사하게 대외적 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최근 제조업 고용의 지속적인 감소 경향은 경기후퇴에 의한 영향과 더불어 구조적 고용조정 과정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향후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적극적 제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KLI**